

멸망의 가증한 것

The Abomination of Desolation

마태복음 24:15,16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

다니엘 11:31 “군대가 그의 편에 서서 견고한 성소를 더럽히고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폐지하며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리라.”

다니엘 12:11 “날마다 드리는 희생제가 폐지되고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이 세워질 때부터 일천이백구십일이 될 것이니라.”

데살로니가후서 2:3,4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서는 그 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그리고 나서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이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것과 숭배 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구주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배도한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내릴 것이며, 특별히 메시아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박은 일로 인하여 보응의 징벌을 받게 될 것을 알려 주셨다. 두려운 사건이 절정에 이르기 전에 먼저 분명한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무서운 시간은 갑자기 또한 신속히 이를 것이다. 구주께서는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고 경고하셨다. 마태복음 24:15,16, 누가복음 21:20,31. 곧 이교국인 로마의 군기가 예루살렘 성벽으로부터 수마일 밖에까지 미치는 거룩한 땅에 세워질 때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도망하여 안전을 얻어야 할 것이었다. 경고한 징조가 보일 때에 도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지체 없이 서둘러야 할 것이었다. 예루살렘은 물론이요 온 유대 땅에서도 도망하라는 신호를 볼 때에 즉시 응할 것이었다. 지방 위에 있던 사람은 비록 무슨 보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러 집 안으로 내려가지 말 것이었다. 밭과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더운 날에 일하기 위하여 벗어 둔 겉옷을 가지러 집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할 것이었다. 저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멸망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한 순간도 지체하지 말아야 할 것이었다.”
Great Controversy p. 25

“그리스도인은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미리 경고하셨으므로 그분의 말씀을 믿은 모든 사람은 그 약속의 징조에 유의했다. 구주께서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라고 말씀하셨다. 눅 21:20,21. 로마군은 세스티우스의 지휘 아래 그 성을 포위하였다. 그러나 모든 점으로 보아 공격하기에 유리한 것처럼 보였을 때에 그들은 갑자기 그 포위망을 풀고 퇴군하였다. 성 안에 포위되어 있던 사람들은 적군을 격퇴할 수 없음을 알고 항복하려던 찰라였는데, 그 때에 아무런 명백한 이유 없이 로마군의 대장은 군사를 거느리고 물러갔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섭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유익을 위하여 사건들을 지배하셨다. 약속의 징조는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다. 이제 구주의 경고를 순종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의 문이 열렸다. 그 사건은 너무나 압도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로마인을 막론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도망하는 일을 막을 수 없었다. 세스티우스가 퇴각하는 것을 본 유대군은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서 물러가는 적군을 추격하였다. 그리하여 두 군대가 교전하는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은 성을 빠져나갈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당시에는 저들을 막을 만한 적군이 지방에는 없었다. 그 성이 포위된 당시에 유대인들은 장막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으므로 전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무사히 도망할 수 있었다.” Great Controversy p. 30

캐톨릭 교회의 큰 배교는 자만심과 권력을 사랑한 결과였다. 교회와 국가에 궁극적인 연합이 교황정치 제도에 - 박해하는 능력을 형성하였다. 교황이 그 자신을 지상에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종교적인 것들을 그들의 세력으로 사용하였다.

데살로니가후서 2: 10,12,13,15.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 사랑 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드림이 마땅함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시어 성령의 거룩케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나 너희가 배운 바 전통들을 지키라. “

이 변절은 야의 말씀의 분명한 가르침들로부터 떠난 동기였다. 야웨의 모든 의도에 순종하는 대신에 오만하고 자신만만한 사람들이 해석한 성경 말씀으로 인도하였다. 그들 사이에서 투쟁에 동기는 관습을 따르는 사람들의 기초적인 교리들 때문이었다. 교리를 만든 자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복음의 단일성으로부터 급속히 부패하였다.

재림의 믿음을 가진 우리의 선구자들 중에 하나가 “가증한 것에 멸망”에 형성을 5 단계들에 목록으로 작성하였다.

- 1) 교리를 형성한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것 대신에 사람이 만들어 말한 것을 그들의 믿음으로 고수 하여 나타낸다. 성경말씀을 사람이 해석하여 진리에 자리에 놓으므로, 그들이 진리로부터 벗어난다.
- 2) 사람이 만들어 놓은 교리로 친교를 시험하고 또 그들의 교리들에 정확한 표현에 동의하지 않는 자들을 모두 이단자들로 규탄한다.
- 3) 마련된 교리의 규칙으로 모든 이단자들이 시험을 받을 것이다. 그들을 대적하여 포고한 자들에 비하여 그들의 믿음이 성경말씀으로 더욱 일치하여 똑 바른 믿음을 가진 많은 자들이 죄인들이라는 선언을 받았다.
- 4) 이단자들을 재판하기 위하여 그들 자신들이 법률을 제정하고, 그들의 교리에 동의하지 않는 모든 자들을 친교로부터 제명처분한다. 이 세상 교회의 특권들을 만족하지 않고 방해하는 그러한 취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그들에게 불 못에 들어가야 할 대상이라고 선언하였다.
- 5) 그들의 교리에 순응하지 않는 모든 자들을 적대하여, 그들 자신들 마음속에 증오심에 불을 붙이고, 그들이 그 다음에 국가의 무력을 원조 받아 심한 고통을 주기에 참여하고, 또 칼로 죽이고, 굶주림과, 화염과, 또 지상의 짐승들로 그들을 죽이며, 이 세상에서 살아있을 가치가 없다고 선언한 자들에게 행하였다.

요약

1. 그들이 마련한 교리를 우리가 믿어야 할 것으로 사람들에게 말한다.
2. 그 교리가 교회 멤버의 자격이 되는 시험이 된다.
3. 그들이 신설한 교리로 멤버들을 시험한다.
4. 그 교리를 믿지 않는 자들을 이단자들로 고발한다.
5. 그러한 사람들을 적대하여 박해를 개시한다.

이러한 완전한 배교의 진로가 분명히 로마 카톨릭 조직을 따르고 있으며, 또 결국 ‘암흑 시대’로 인도될 것이다.

다니엘 7:25 “그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항하여 큰 말을 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지치게 할 것이고 또 때들과 법들을 (영문) 변경시키려고 생각할 것이다.”

이 종교적인 조직에 의한 영향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이 다윗과 동일한 기도를 하게 될 것이다.

시편 143:2-4 “주의 종과 함께 심판으로 들어가지 마소서. 이는 주의 면전에서 살아 있는 어떤 사람도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원수가 내 혼을 박해하였고, 내 생명을 땅에 내리쳤으며, 나로 하여금 죽은 지 오래 된 사람들처럼 암흑 속에서 거하게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 영이 내 안에서 쇠잔하며,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이 절망하나이다.”

“멸망의 가증한 것”이 사탄에 의하여 디자인 된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가능하면 많은 영혼들을 멸망케 하기 위함이다. 그것이 교활하게 속여서 전개되었다.

계 12:9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 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야께서 교회의 개혁을 위하여 현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정연하게 이 멸망을 대항하도록 하셨습니다.

에레미야 12:10 “많은 목자들이 (영문) 내 포도원을 파괴시켰고 내 땅을 밭로 짓밟았으며, 그들은 내 기쁨의 땅을 황폐한 광야로 만들었도다.”

에레미야 3:14,15 “타락한 자식들아, 돌이키라. 주가 말하노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장가들었음이라. 내가 너희에게서 성읍 중 하나와 족속 중 둘을 취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리라. 또 내가 내 마음에 합당한 목자들을 (영문) 네게 주리니, 그들이 너희를 지식과 총명으로 먹이리라.”

시련과 박해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짜 안식일에 경배하기를 거절하는 모든 자들에게 닥칠 것이다. 강제는 모든 가짜 종교의 마지막 수단이며 “가증함으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을 분명히 보여 주는 것이다. 우리는 안전을 위하여 그곳에서 도망하여야 한다!

개혁이 유지되는 것은 양심적인 것들 안에서 영의 원리들에 영향력으로 보존된다. 그러나 어떤 그룹이 또 다른 그룹을 본받아 이전에 언급한 방침에 따라서 - 그 교리들을 그들의 믿음들로 결정시킨다.

1. 그들이 교리를 마련해 놓고 멤버들에게 확실한 믿음이라고 말한다.
2. 그 교리를 교회 멤버의 자격이 되는 시험으로 만든다.
3. 그들이 신실한 교리로 멤버들을 시험한다.
4. 그 교리를 지지하지 않는 자들을 이단자들로 고발한다
5. 그러한 모든 이단자들을 적대하여 박해를 개시한다.

중대한 것은 - 개혁이 여러 세기를 통하여 계속되었다. 에스겔 36장을 읽는다.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너희의 모든 죄악에서 깨끗케 하는 날에 [대속죄 일] 내가 또한 너희로 그 성읍들에서 살게 하리니 (잘 수립되어, 연합한 가족들) 폐허에 집을 짓게 되리라 (품성이 완전하게 된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목전에 황폐하게 버려졌던 곳 (바벨론), 황폐한 땅이 경작되리라 (마음들이 정결케 된다). 그러면 그들이 말하기를 ‘황폐했던 이 땅이 에덴의 동산같이 (활기가 넘치는 생애로 충만하게) 되었도다. 삭막하고 황폐하고 파괴된 성읍들이 성벽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법을 표준으로], 사람들이 살고 있도다. (분리되거나 흩어지지 않은 자들) 하리라.’ 그러면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은 (세속적인 교회들과 교회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 나 주가 폐허를 세우고 황폐한 곳에 심는 줄을 알리라 (안식일의 야께서, 성화와 구원에 싸인으로, ‘큰소리 외침’을 통하여 회복하실 것이다):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으니 그대로 행하라. (살아있는 증인에 의하여 창조의 능력이 실증 될 것이다.)” 에스겔 36:33-36.

야웨께서 그분의 교회에 의하여 그분 말씀으로 마지막 - 날에 부흥과 개혁을 약속하셨다. 그분의 말씀이 진리이다.

요한복음 17:17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에레미야 22:3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심판과 의를 행하고 압제자의 손에서 탈취 당한 자를 구해 내며, 타국인과 아비 없는 자와 과부에게 잘못 행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말고,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스파냐 3:11-20절의 예언을 주목하라. “그 날에는 내가 나를 거슬러 범죄하였던 네 모든 행위에 대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때에 내가 네 교만을 즐거워하는 자들을 네 가운데서 제하여 낼 것임이라. 그리하면 너는 내 거룩한 산으로 인하여 다시는 오만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한 네 가운데 고통받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 두리니, 그들이 주의 이름을 신뢰하리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죄악을 행치 아니할 것이요, 거짓말도 아니하며, 그들의 입에서는 속이는 혀도 찾아볼 수 없으리니, 이는 그들이 먹으며 누울 것이나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못할 것임이라. 오 시온의 딸아, 노래하라. 오 이스라엘아, 부르짖으라. 오 예루살렘의 딸아, 마음을 다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주께서 네 심판을 제하셨고 그가 네 원수를 쫓아내셨느니라. 이스라엘의 왕, 곧 주께서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악을 보지 못하리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하겠고, 시온에게 말하기를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지어다.’ 하리라. 네 가운데 계신 주 너의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 그가 너를 구원하실 것이요, 그가 기쁨으로 너를

즐거워하시리라. 그는 그분의 사랑 가운데 안식할 것이요, 그분은 노래로 너를 즐거워하시리로다. 내가 엄숙한 집회로 인하여 슬퍼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너에게 속한 자들이요, 그 비난이 네게 짐이 되었도다. 보라, 그 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모든 자를 파멸시킬 것이며, 또 내가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고, 그들이 수치를 당하였던 모든 땅에서 찬사와 명성을 얻게 하리라. 그 때에 내가 너희를 다시 부르고 그 때에 내가 너희를 모으리니, 이는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힌 자를 돌이킬 때, 너희로 땅의 모든 백성 가운데서 명성과 찬사를 얻게 하려 함이라. 주가 말하노라.” 이 예언이 성취될 것을 우리가 안다.

계시록 14:1-5절에서 설명한 예언이 이 영혼들에게 부속된다.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 위에서 있고 그와 함께 십사만 사천 명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더라.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 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더라. 또 내가 하프 타는 자들의 하프 소리도 들었노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불렀는데, 땅에서 구속을 받은 십사만 사천 명 외에는 그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더라.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이니 이는 그들이 동정들임이라.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 들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입에서 교활함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흠이 없기 때문이라.”

친애하는 자들이여, 이 구절들이, 창조 제 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말하는 것이며 - 마지막 개혁자들으로써 - 마지막 시대 사람들으로써 잘못된 생각을 하거나 또는 잘못된 행동을 행하기보다는 그들이 차라리 죽을 것이다. 그들이 성경을 취하고 또 오직 성경이 그들의 교리가 될 것이다. 강요하는 영이 그녀의 영역 안에 없을 것이다.

그녀는 시저에게 교섭하고자 개시하지 않을 것은, 그녀가 남편이 있기 때문이다 - 그 남편이 사람이신 그리스도 야쉬와시다. 그분이 그녀에게 충실한 위로자시고, 보호자시고 또 구주시다. 그녀가 “가증한 것이 멸망할” 것을 보고 전능하신 분의 날개 아래 “야의 산”으로 도망하였다.

“충실한 소수의 무리가,” 오랫동안 맹렬한 투쟁 후에 “본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연합하여 배도한 모든 교회로부터 완전한 분리를 필요로 한 것이었다.

그들이 감히 그들 자신의 영혼들에게 치명적인 잘못을 관대하게 취급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러한 모본을 보이면, 그들 자손들의 믿음을 위태롭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 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음이라.” (계시록 14: 7)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에 (가증한 것들)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멸망) 받지 말라. 이는 그녀의 죄들이 (가증한 것들)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한계가 있음 - 창세기 11:4-9), 또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불의를 (가증한 것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니라.” (계시록 18:4,5)

오늘 그대의 사악한 도시로부터 도망하여 야의 산으로 들어오라고 그대를 초청한다 - 이것이 “멸망으로 이끄는 가증한 것으로부터” 영원한 은신처에 장소가 될 것이다.

에레미야 51:29: “그 땅이 떨며 슬퍼하리니, 이는 주의 여러 가지 의도가 바벨론을 대적하여 실행될 것이며 바벨론의 땅을 황폐하게 하여 거민이 없게 할 것임이라.”

데살로니가전서 5:1-28 “형제들아,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니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할 때에 아이 밴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니 그 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있어 정신을 차리자. 이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쓰자.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행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 주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훈계하는 사람들을 알아서, 그들의 하는 일로 인하여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라. 너희는 서로 화목하라. 형제들아,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무질서한 자들을 훈계하며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고 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너희 자신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모든 일을 시험하여 보고 선한 것을 붙잡으라. 악은 어떤 형태이든지 피하라.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것을 행하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에게 부탁하노니 이 편지가 모든 거룩한 형제들에게 읽혀지게 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2007년 5월 5일 안식일 - 칙 목사 설교)